

## ‘두 귀 달린 흑유병’-중국 자주요磁州窯

박성혜 | 309호 신안해저문화재질 | 18:00~18:30

자주요는 중국 북방의 가장 큰 민요로 허베이성 츠현(磁縣)에 위치해 있습니다. 츠현은 과거에 자주磁州라고 불렸습니다. 이 지역은 동서로 관통하는 장허(漳河)와 푸양허(滏陽河) 두 강에 인접하여 자주요의 생산에 풍부한 수자원을 공급했을 뿐만 아니라 수상 운송을 편리하게 하여 자주요가 외부 시장을 점령하는데 이점을 제공하였습니다. 자주요는 북조시기에는 청자를 생산했고, 당말 오대에 이르러서는 백자를 생산했습니다. 북송대에 이르러 ‘백지흑화’라는 독특한 공예장식기법으로 중국 도자사에서 독자적인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생산제품으로는 흑유자, 백자 그리고 백지흑화자가 유명하다. 신안선에서 발견된 자주요 도자기는 완碗, 병瓶, 호壺 등이 있습니다.

### 신안해저선에서 발견된 흑유양이병



그림1. 흑유양이병黑釉兩耳瓶

그림1. 구연부가 밖으로 벌어지고 목이 짧으며, 목과 어깨 부분에는 세로 줄무늬가 장식된 두 개의 귀가 양측에 대칭으로 붙어 있습니다. 둥근 몸체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좁아지며, 다리굽이 달려있습니다. 굽을 제외한 전면에 유약을 입혔는데 먼저 윤기가 없는 갈색 유약을 바른 후 농도가 짙은 흑유를 입혔으며, 몸체 아랫부분에는 유약이 흘러내려 뭉친 현상이 보입니다. 몸체에는 푸른색의 토끼털 무늬가 흐리게 보입니다.

그림2. 도자기 아랫부분 굽 근처에서 가장 풍만하게 벌어지다가 위로 올라갈수록 오므라들며 짧고 굵은 목으로 이어집니다. 목의 양측에는 국화문 장식의 귀가 각각 달려있습니다. 검은색의 두터운 유약이 입혀졌으며, 유약을 두 번 입혔는데 두 번째 입힌 유약이 굽 근처에서 흘러내려 뭉쳐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연부는 유약이 흘러내려 갈색을 띠고, 태토는 미황색으로 갈라짐 현상이 확인됩니다.



그림2. 흑유양이병黑釉兩耳瓶

## 서화 소장품의 안전한 보관과 전시

김세원 | 서화2실 202호 | 18:00~18:30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대략 1만 8천점 가량의 서화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으며 이 문화재들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한 보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재들은 전시실에 설치되어 일반 관람객들에게 최상의 상태를 선보일 수 있도록 유물관리부 수장고의 제어된 환경에서 보관됩니다. 특히 회화의 경우 족자, 서책, 서화첩, 편화, 액자 등 다양한 형태로 수장고에 보관 관리되어야 하며 전시 효과 제고와 상태 보전을 위하여 수장고 보관을 위한 휴지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서화류 소장품의 경우 개별적으로 전시와 보관에 용이하도록 각 형태에 맞는 장황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장황장潢(장지장潢)은 용어와 형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인 기능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서화 문화재의 장황된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와 양식에 맞추어 포장됩니다. 회화 중에서 벽에 걸어 위에서 아래로 길게 늘어뜨리는 형태는 족자, 가로로 길게 옆으로 펴고 마는 형태는 횡축橫軸으로 구분되는데 이 두 가지 형태의 회화는 화면을 말아놓은 상태의 크기에 맞추어 개별 오동나무 상자를 이용해 포장합니다. 출입문이나 벽면에 넓게 거는 형태의 편액扁額은 힘을 받을 수 있는 뽕뽕한 종으로 상자를 만들거나 나무틀에 한지를 바른 액자틀 형태의 포장재를 이용하여 보관 및 운송을 위하여 포장합니다. 그리고 여러 폭의 편화를 연이어 연결하여 장황한 것은 병풍은 잘 포개놓은 형태 그대로 힘을 받을 수 있는 뽕뽕한 종이상자로 감싸거나 병풍 크기에 맞춘 주머니를 이용하여 개별 포장합니다. 이러한 서화류의 포장은 보관 시 문화재의 안전한 관리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외부 환경에 취약한 지류 문화재의 안전한 운송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그림 3. 액자류 포장 상태



그림 4. 전적, 서첩류의 표갑식 포장 상태



제665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9년 11월 27일)

## 손세기·손창근 기증 명품 서화전 3: 안복眼福을 나누다

오다연 | 서화실 202호 | 19:00~19:30

상설관 2층 서화실에서는 손창근 님이 부친 고故 손세기 님과 대를 이어 수집한 문화재 202건 304점을 2018년에 기증한 것을 기념하며 세 번째 특별전, “안복眼福을 나누다”(2019.11.12.~2020.3.15.)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복은 아름다운 서화를 감상하며 느끼는 즐거움을 뜻하는데, 개인이 누렸던 안복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한 기증의 높은 뜻을 되돌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기증전에서는 19세기 서화 수요층의 확장과 새로운 미감美感에 부응한 김정희 일파 및 직업 화가들이 개성적인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시품 중 절반 이상이 최초로 공개하는 작품입니다.

이번 기증 명품 서화전에서 주목되는 작품은 김정희가 높이 평가했던 제자, 허련許鍊(1808~1893)이 만년에 제작한 <노송도>입니다. 허련은 초의선사의 소개로 김정희의 제자가 되어 남종화풍의 그림과 서권기書卷氣를 강조한 글씨를 배웠습니다. 1856년 김정희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고향인 진도로 내려와 서화제작에 몰두했습니다. <노송도>는 열 폭의 종이에 소나무 한 그루를 화면 가득 그린 대형 작품입니다. 19세기 중반부터 연이은 화풍에 매화를 그리는 연폭매화병풍이 유행했는데 허련은 이러한 형식을 빌려 소나무를 그렸습니다. 장관을 이루는 거대한 규모, 등치의 껍질과 구불거리는 가지의 역동적 표현 등은 스승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신의 화풍을 이룬 대가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눈 덮인 산 속에 홀로 우뚝 서 있는 소나무의 모습에서 노송의 고고한 위엄과 함께 허련의 완숙하고 거침없는 필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정학교丁學敎(1832~1914), 민영익閔泳翊(1860~1914), 장승업張承業(1843~1897), 오세창吳世昌(1864~1953), 안중식安中植(1861~1919) 등 19세기에 활동한 서화가들의 작품을 통해 19세기 문예계의 다양성과 상호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항문인이자 서화가인 정학교丁學敎(1832~1914)의 <행초10폭병풍>과 명성왕후의 외척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산 민영익의 개성적인 ‘운미란芸楣蘭’은 19세기 말 이들의 역동적인 삶과 예술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세창이 75세에 전서로 쓴 <연경실硯經室> 편액은 경서를 연구하는 집이란 뜻으로 그의 학문세계와 가치관을 보여주는 만년기 작품입니다. 상설관 2층 서화실에서 손세기·손창근 기증 명품 서화를 천천히 감상하며 안복眼福을 충분히 누리보시길 바랍니다. (포스터 첨부)





# 손세기·손창근 기증 명품 서화전 3

안복<sup>眼福</sup>을 나누다

TREASURES FROM  
THE SOHN COLLECTION  
OF CALLIGRAPHY AND  
PAINTING 3

안복<sup>眼福</sup>은 아름다운 그림과 글씨를 감상하며  
느끼는 즐거움입니다.  
개인이 누린 안복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하고자 한 기증의 높은 뜻을 되새겨봅니다.

2019. 11. 12. 화 ————— 2020. 3. 15. 일



## 강서대표의 사신도 중 백호

김동우 | 105호 고구려실 | 19:00~19:30

청룡靑龍, 백호白虎, 주작朱雀, 현무玄武를 사신四神이라 합니다. 사신은 동서남북의 네 방향, 봄·여름·가을·겨울의 네 계절, 하늘 사방의 28 별자리와 관련 있는 상상속의 동물입니다. 우리나라에 사신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삼국시대로 추정되는데, 고구려 무덤벽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고구려 무덤벽화 사신은 처음에는 무덤간 천장에 해와 달, 별자리, 신령스러운 동물, 연꽃 등과 함께 하늘세계를 이루는 한 요소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벽화 내에서의 비중이 높아져, 6세기 이후에는 무덤 칸 벽면 전체를 차지하는 사실상 유일한 주제로서, 우주의 한 방향의 방위 신이자 무덤 주인을 위한 수호신으로 등장합니다.

고분벽화에서 백호는 초기에는 머리와 세부는 호랑이와 같으나 몸체는 청룡처럼 목과 몸통, 꼬리가 가늘고 긴 파충류와 같이 그려집니다. 그러나 6세기에 접어들면서 백호는 과장된 아가리와 부릅뜬 붉은 눈, 위와 아래로 뻗은 날카로운 송곳니, 앞으로 내밀어 쳐들어 올린 앞발 등이 조화를 이룬 신령스러운 기운 가득 찬 존재로 그려졌습니다. 따라서 얼핏 보면 동방의 수호신 청룡과 비슷하게 그려진 것 같지만 대개의 경우 머리의 형상과 몸에 있는 물결무늬 모양의 줄무늬에 의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5세기 후반에 그려진 쌍영총 백호는 무덤 벽면의 훼손이 심하여 자세와 형태의 특징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6세기 전반에 그려진 진파리 1호분 백호는 빠르게 흐르는 구름과 인동 연꽃을 배경으로 백호가 힘 있게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백호의 머리는 자연계의 호랑이의 모습에서 아직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빠르게 흐르는 기운을 타고 연꽃과 새의 화생[雲氣化生]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화면 구성의 주요 요소인 점은 널방의 다른 벽면에서의 사신도에서와 같습니다.

6세기 후반에 그려진 강서대표의 백호는 남쪽의 널방 입구를 향해 포효하며 내닫는 모습입니다. 몸통에 이어진 목과 머리는 역전 S자 꼴을 이루며, 크게 뜬 눈과 코, 길게 빼어진 혀 등이 무덤을 지키는 백호의 위엄을 나타내는데 손색이 없습니다. 어깨 부분에서 불꽃 형상으로 뒤로 뻗은 상서로운 기운과 몸통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늘어 보이는 다리가 힘찬 역동감이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림1 쌍영총 백호, 5세기 후반, 남포시 용강군 용강읍



그림 2 진파리 1호분 백호, 6세기 전반, 평양시 력포구역 용산리